



형광등 효율 높이고 전기요금 줄여주는 우림 '돈반디'

“형광등 3배 밝게 하는 반사갓, 국회서도 쓰죠”

홍순환 우림 대표가 형광등용 반사갓에 주목한 것은 2008년이다. 그는 2002년부터 안전모, 안전벨트 등 건설용 안전용품 제조사를 했지만 계속된 적자로 위기를 겪었다. 업종 전환을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TV를 분해하다가 화면을 밝히는 백라이트 유닛(BLU)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들어가는 친환경 소재인 페트(PET) 반사·확산시트를 형광등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한 것. 1년여간의 개발 끝에 2009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박람회에 '삼파형 형광등용 리플 반사갓'인 돈반디를 출품했다.

◆조도 최대 3배로 향상
돈반디는 형광등에 끼워 쓰는 반사갓이다. '돈을 잡는 반딧불이'란 의미로 형광등에서 손실되는 빛을 줄여 조도를 최대 3배로 높인다. 형광등 1개도 2-3개 밝기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철 또는 알루미늄 소재인 기존 반사갓보다 가격도 저렴하다. 홍 대표는 “누구나 쉽게 끼울 수 있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판매가 잘 된 것은 아니다. 박람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방 매출로 이어지지

TV 반사시트서 아이디어
형광등에 끼우면
전력 소비 최대 50% 줄어

다이스 입점 추진
미국 등 11개국 수출

않았다. 홍 대표는 가격을 35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자체 쇼핑몰에서만 판매하다 '왕도매' 등 도매 온라인몰 등으로 판로도 확대했다. 점차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회의사당에서도 돈반디를 사용한다. 2013년 반사갓 3000여개를 설치했다. 형광등 수를 3분의 2로 줄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설명이다. 지난해 건국대 상하 기법도서관에도 5400여개를 설치했다. 평균 조도가 338럭스에서 988럭스로 3배가량으로 높아지고, 투입 전력은 22% 줄었다. NS홈쇼핑 본사와 명지대도 돈반디를 쓰고 있다.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와 손잡고



홍순환 우림 대표가 형광등용 반사갓인 '돈반디'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수출을 시작했다. 반응이 좋아 지난해 태국 호주 등 11개국으로 판로를 확대했다. 올해 총 80만달러 어치의 물량이 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B2C 시장 본격 공략”
홍 대표는 “그동안 도매상 위주 영업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구에 맞춰 소형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와 입점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면 다음달부터 판매될 것으로 홍 대표는 보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판로 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LED(발광다이오드)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LED전구 제조사와 손잡고 ‘에너지 절감형’ 전구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LED용 확산시트 광파이프와 반사시트 발열판을 개발했다. ‘셀프 인테리어족(族)’을 겨냥한 조명용 액세서리 출시도 준비 중이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한판 붙자, 자이언트”

(세계 1위 대만 자전거업체)

원앤원 등 국내 업체
고급 자전거 시장 공략



원앤원의 '위아위스'

“국산 자전거로는 될 해도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고급 자전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만의 자이언트, 미국의 트렉 스페셜라이즈드 등 글로벌 브랜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규모는 작지만 기술과 디자인 등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앤원은 기술에 '올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양공할 시장 세계 1위 업체다. 알루미늄보다 무게가 가벼운 카본 제품을 처음 개발해 미국 호이트, 일본 야마하 등 기존 강자들을 제쳤다. 지난해 5월 활 소재인 나노 카본으로 만든 '위아위스' 브랜드를 출시했다. 박경래 원앤원 대표는 “가볍고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고급 자전거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것으로 봤다”며 “자전거 판매 수익은 대부분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 시장에서 그랬듯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초로 무게가 630g인 뼈대(프레임) 생산에 성공했다. 해외 고가제품(670~690g)에 비해 훨씬 가볍다는 설명이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이 아닌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다. 최고가 제품은 1137만원으로 비슷한 종류의 해외 브랜드 제품보다 10~20% 비싸다.

경기 안성 공장에서만 제품을 만들었지만, 최근 중국 베이하이 공장에서도 자전거 생산에 들어갔다. 원가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루 20대 수준인 생산량을 2~3배 늘리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는 휠, 핸들바 등 프레임 외 부품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MBS코퍼레이션이 만드는 '엘파마'는 동호인들 사이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11년 일찌감치 별도의 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트렌드 분석에 힘쓴 결과다. 최신 모델인 '환타지아' 등 주요 제품은 굿디자인(GD)인증을 받았다.

해외 제품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맞춤제작'을 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가격은 부품에 따라 60만원에서 850만원 선. 김병철 MBS코퍼레이션 대표는 “프레임 크기를 모델에 따라 최대 여섯 종류로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프레임 모양은 철저히 한국인 체형에 맞췄다. 김 대표는 “사람인에 비해 팔과 다리가 짧은 신체 특성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했다”며 “수출보다는 우선 국내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중소 절반 “경쟁력, 개도국 수준”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고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52%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며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25%는 '경쟁력 정체가 오히려 개도국 중소기업에도 밀리는 형국'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20.7%는 '선진국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에 가까웠다'. 2.3%

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69%는 최근 경제·경영 환경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 '기술부족과 자금난'(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37.7%) 등을 들었다.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으로 '투자지향적 지원이 아니라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정책이 많다'(28.3%)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정책의 재편 방향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 방식에서 제한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의견이 32.3%로 나타났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매일 아침 책 읽는 코스맥스 직원들

(화장품 ODM 업체)



화장품 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맥스 직원들은 아침마다 책을 읽는다. 팀원 중 한 사람이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다른 사람이 소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 책이 박재희 민족문화연구원 원장이 쓴 '3분 고전 12'이다. 최근에는 이진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쓴 '달바꿈의 동양고전'을 읽기 시작했다.

이 회사 직원들이 '책읽기 조회'를 시작한 건 2010년부터다.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은 “좋은 글이나 책을 읽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직원들에게 자극이



코스맥스 직원들이 아침 조회에서 책을 읽고 있다.

코스맥스 제공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무에 쫓겨 책 읽을 시간조차 없는 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이 회장은 직접 책을 골라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처음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몸도 고된데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들이 더 적극적이다. 임대규 코스맥스 홍보팀장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사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2015년형 007스파이 적외선 시계 캠코더

16GB 대용량 최고화질 방송, HD영상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동시녹음
불빛이 전혀 없어도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다!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는 보통 손목시계이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 및 야간촬영이 가능하며 야간촬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불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눈치 채지 못하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사전촬영은 메모리 16기가로 48,000장까지 저장 가능하다. USB로 연결해서 이동디스크 인식, 업무상 비밀녹음, 녹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역술할 29,000원이내 구입 가능! ※A형방생시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USB 케이블, 충전기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

문의: 1899-3177 / 02-474-8822

2015년 최신형! 전기자전거

15년 전통의 기술력노하우

- ▶ 국내최초개발 1회충전으로 실주행거리 90km ±10%
- ▶ 공장, APT, 경비원근무자, 경비순찰용 최고제품
- ▶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성능
- ▶ 강력한 파워 어시스트 가능

★월 4만원 구입가능!

주행거리와 개인 운동량을 조절하는 어시스트 주행방식과 편안한 주행 스포츠방식 모두채택

직장인 노약자 주부 학생 교통수단으로 대인기!! 출퇴근, 시장보기, 레저용, 치킨, 피자, 슈퍼, 배달용 등

문의: 1899-3177 / 02-474-8822

강하게, 오래오래.. "항제옥환"

링은 늘어나야한다!!! 왜? 아프니까!! 빠지니까!!

중간에 시든다, 강직도가 약하다, 사정이 빠르다
작아서 아프고, 커서 빠지고, 살이 찌고, 피부아래지 등

이런 불편한 링은 가라!!!

항제옥환은 진정한 "링이로가" 들이 극찬한 제품입니다.

남성은 그녀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중이 팽창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링이 손에 끼는 반지처럼 고정형이라면 링속에서 남성만 수축운동을 하게 되므로 아픈 등증 등 불편함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항제옥환은 2026년 7월 1일까지 특허 (제30-0604759) 받은 기술로 남성이 시든 상태에서 손에 반지같이 딱 맞게 착용하면 남성이 시들었다 굳어졌다 할 때 링의 늘어나는 기능이 남성과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팽창감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효과가 확실하고 팽창시 아프거나 헐거워져 빠지거나 하지 않는 것이 항제옥환만의 특허받은 기능입니다.

특/허/등/등록 제30-0604759호

●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탄력있게 늘어나주기 때문에 착용시 혈관이 딱딱 붙어질 정도로 팽창되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 더 굵고 더 길게 착용방법에 따라 숨겨진 남근이 최대 길이 연장의 효과로 인해 남근의 작고 외소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 착용후 링은 몸속에 살짝 파묻혀서 여성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매우 만족해 합니다.

특/허/등/등록 제30-0604759호

헬스뱅크 상담전화 1577-1780 / 010-7278-2490

NAVER 항제옥환 검색